

茶山の 斂襲衣 制度에 관한 研究

- 喪具訂을 중심으로 -

순 남 속 · 임 영 자*

사단법인 예지원 기획과장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Dasan's System of Washing and Shrouding a Dead Body - Focused on SANGUJUNG -

Nham-Sook Soon · Young-Ja Lim*

Dept. Planning and Coordination, Yejiwon
Dept.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essor*
(2001. 2. 16 투고)

ABSTRACT

The system of washing and shrouding a dead body is a series of procedures for encoffining in funeral rites, which are taken after death identification by using CHOKWANG and praying for the resurrection of a dead body by calling a soul departed from the body

The washing and shrouding a dead body (hereinafter referred to as "YEOMSEUP") is the broad concept which contains the procedures of washing, clothing and shrouding the body. The clothing includes washing, putting rices into the mouth, and then dressing while the shrouding includes first wrapping, second-wrapping and encoffining. The clothes for YEOMSEUP (all clothes and articles for funeral rites are designated) will be put in the coffin along with a dead body according to the YEOMSEUP procedures.

Dasan, a SILHAK scholar in the late Yi Dynasty, pointed out some problems of the funeral rites observed in those days. At the same time, he found that the problems had arisen from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descriptions in Chinese characters, and had tried to correct them. The books written by Dasan basically emphasized his ideology reshaping the whole procedures by trimming and removing meaningless formalities which are too much luxurious and wasteful and making them as a part of the original principles of the funeral rites. His intents are clearly shown in his wrings on practical ettiquettes, such as SANGRYESAJON and SANGUIJEOLYO.

In its attempt, this study aims at reformulating the DASAN's SANGRYESAJON in terms of YEOMSEUP methods. A lot of virtues of the Dasan, like WOOSU, SIMUI, DAEDAE, MO, SORYUMHYO and DAERYUMHYO could also be found accordingly. The merits and characteristics in funeral rites are an obedience in filial duty, the pursuit of frugality, and the efficiency of practical functions.

It could be said that the resurvey of DASAN's theory on YEOMSEUP procedures is a meaningful work today when the original meaning of funeral rites fades out. Furthermore, discussions of refined burial service and encouraging cremation designed to improve land use, which are widely spread among people, could weaken the basic philosophy of YEOMSEUP and more likely propagate the atmosphere of despising the dignity of human beings.

Key Words : woosu, simui, daedae, mo, soryumhyo, daeryumhyo

I. 서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각 문화 또는 각 종교가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朝鮮이 건국되면서 儒敎를 國敎로 수용함으로써 儒敎式 儀禮가 일반화되어 그것이 죽음과 관련된 민족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朝鮮은 王朝 初期부터 《國朝五禮儀》《三綱行實圖》 등의 서적을 편찬하여 간행 반포하고 또 《朱子家禮》를 보급함으로써 국가의 전체 구성원들의 삶을 유교적 의식 속에 통합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중엽부터는 《朱子家禮》를 준용하는 사족(士族)이 점차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性理學과 實學의 발달에 의하여 조선시대 후기의 禮學과 禮文化는 그 깊이와 폭은 물론 정밀성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장송의례(葬送儀禮)인 喪禮는 家禮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喪禮의 절차 중에서 습(襲)과 소렴(小斂), 대렴(大斂)의 儀節이다. 이 절차를 絜(斂襲)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에서 드러나듯이 屍身에 옷을 입히고 屍身을 금(衾)과 효(絞)등으로 수렴하는 일체의 의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때에 필요한 옷과 이불, 상구(喪具)를 총칭하여 絜(斂襲衣)라고 한다.

斂襲의 절차는 어떤 종교의 장송의례에서나 마찬가지로 거치는 절차이지만 유교가 특히 신중(慎終)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조선시대 유학자의 禮書에는 이 斂襲의 절차와 斂襲衣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喪禮를 상의(喪儀), 상구(喪具),

상기(喪期), 상복(喪服)의 네 분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학문적으로 고찰하여 《상례사전(喪禮四箋)》을 편찬하였는데 그 다루는 방법과 내용이 독특하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성리학자의 설이 주로 《朱子家禮》의 외연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한당(漢唐)시대의 정현(鄭玄)과 가공언(賈公彥), 공영달(孔穎達) 등에 의해 이루어진 《예기주소(禮記注疏)》, 《의례주소(儀禮注疏)》를 중요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茶山은 기존의 성리학자의 설은 물론 注疏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경전의 원의에 대한 정확하고도 자세한 고찰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茶山의 학설을 소개하고 여러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斂襲衣 制度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茶山의 〈喪具訂〉을 비롯한 조선시대 성리학자의 禮書, 注疏家들의 注疏들을 검토하여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斂襲衣 制度에 대한 茶山의 新說을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합리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다산의 新說은 종교와 가치관의 다원화로 인한 絜의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형태의 絜의 제도를 정립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茶山의 斂襲衣를 비롯한 儒敎 服飾에 관한 학설에 대한 탐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II. 茶山의 禮學과 《喪禮四箋》

1. 茶山의 禮學的 態度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였다고 평가되는 茶山

은 유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註解와 그 경전의 정치적 실현을 위한 많은 저술들을 남겼다.

茶山의 학문활동과 저술의 목적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사상 전반에서 고찰되는 것은 대체로 오래되고 낡은 나라를 혁신하자는 것[新我舊邦]과 그러한 혁신의 원리와 방법으로 유교를 재해석하여 올바르게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사회적 해이와 퇴폐는 단지 윤리 도덕의 마음이 없다는 점 뿐 아니라 그것을 담아서 표현해 주는 禮의 형식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¹⁾ 그래서 조선의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禮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올바른 禮 규범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注疏家들이나 朱子(1130-1200)와 같이 하나의 전통 선상에 있는 학자들의 학설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오히려 《儀禮》《禮記》《周禮》[이른바 三禮]와 같은 옛 경전에서 원래의 禮 규범의 형식과 의미를 되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²⁾ 즉 그는 선진(先秦)시대의 禮가 漢唐 시대의 注疏家의 해석을 거치면서 변형되거나 왜곡되면서 올바르게 전승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宋明 시대로 내려오면서 시대상황의 변화에 상응하여 더욱 그 변형과 왜곡이 심하여졌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변화와 왜곡의 내용과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고, 그 작업을 바탕으로 간편하면서 禮의 정신을 충분히 표상해 낼 수 있는 규범을 정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녔다. 그의 이러한 예학적 입장이 작용하여서 이루어진 저술이 바로 《喪禮四箋》이다.

2. 《喪禮四箋》

《喪禮四箋》은 1803년 겨울에 완성된 <상의광(喪儀匡)>, 1807년 겨울에 완성된 <상구정(喪具訂)>, 1809년 봄에 완성된 <상복상(喪服商)>, 1811년 겨울에 완성된 <상기별(喪期別)>을 하나로 묶은 저술로서 喪禮의 네 가지 분야에 관한 註釋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喪儀匡>은 《儀禮》<士喪禮>(<既夕禮>)<士虞禮>

를 포함)를 풀이하여 喪禮의 의식절차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또 그렇게 하여서 광정(匡正)한 喪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용되는 의금관곽(衣衾棺槨)의 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취지에서 저술한 것이 <喪具訂>이다. 그리고 喪服의 구성요소인 최관질대(衰冠 經帶)의 제도와 五服의 기간을 논한 것이 <喪服商>과 <喪期別>이다.

이처럼 喪儀 喪具 喪服 喪期를 별도로 구분하여 편찬한 《喪禮四箋》은 당시 《朱子家禮》의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성리학자들의 禮書의 편찬방식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喪具訂>은 전체 6권의 분량으로 시사(始死)에서부터 폼(窆), 분봉(塋封), 사초(沙草)에 이르는 절차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루고 있는데 斂襲衣 制度는 1권에서 3권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III. 喪禮의 절차와 斂襲衣

喪禮는 주로 父母 혹은 親屬이 사망한 후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 행하는 중종의 의식 절차와 그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공자때부터 生의 마지막을 신중히 맞이하고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慎終追遠) 의례로서 중요시 되어 왔으며 내용은 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다.

喪禮는 冠禮 昏禮 祭禮와 더불어서 家禮라고 하는데 현재 실행되는 家禮에서는 과거 儒敎 문화를 전승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상례에 사용되는 器物과 服飾들은 다른 어느 의례에 비교하더라도 커다란 변화없이 인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 의례를 보급하고 정착시키려고 노력한 조선의 조정과 재야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어느 민족에서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장례문화의 보수성이라는 문화적 현상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2천년 이상 문화 전통의 줄거리를 형성해온 유교의 孝관념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의 상례절차는 父母喪을 중심으로 볼 때 27개월의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그 의례절차와 내용

은 禮學者들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부모를 잃은 사람에게서 발하는 슬픈 정 [哀情]에 대한 文飾,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신과 혼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상례의 특수성은 亡者와의 관계에 대한 규범이라는 점, 그리고 亡者를 산 사람처럼 대하는 방법에 대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孝를 강조하는 유교의 규범, 그리고 亡者에 대한 산 사람의 孝를 규정한 규범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斂襲이란 상례의 일부로서 始卒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襲과 그 다음날에 이어지는 小斂, 그리고 그 다음날에 행하는 大斂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茶山은 襲의 절차와 飯습의 절차를 함께 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절목으로 보기 때문에 襲습이라고 칭하는데 《朱子家禮》나 《四禮便覽》등 대부분의 예서와 그 흐름은 비슷하다.

斂襲衣란 이 斂襲의 과정에서 소용되는 의복과 이불, 효를 비롯하여 棺에 들어가는 물품 일체를 말한다. 茶山은 〈喪具訂〉 1권에서부터 3권까지에 걸쳐서 斂襲衣와 그 制度를 다루고 있다.

쳐서 斂襲衣와 그 制度를 다루고 있다.

IV. 〈喪具訂〉을 중심으로 한 斂襲衣 연구

〈喪具訂〉에서의 斂襲衣의 품목은 〈표 1〉에서 보듯이 당시 禮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가 비슷하다. 하지만 그 형태와 사용법에 있어서 〈喪具訂〉의 내용은 상당히 독특하다. 이는 茶山이 斂襲衣 제도를 고찰함에 있어서 당시 斂襲衣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그 위에 《儀禮》《禮記》등의 경전의 문구를 근거로 제시하여 그것에 대한 주석이나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옳은 의미와 제도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茶山의 斂襲衣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여 茶山 禮學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데 특히 다음에서 다루는 握手, 冒, 帶, 深衣, 小斂絞, 大斂絞 등은 기존의 성리학자들의 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들로서 다산의 예학적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표 1-1> 襲衣 品目

儀禮	喪具訂	朱子家禮	喪禮備要	喪儀節要	四禮便覽	金淑堂裁縫全書	國朝五禮儀
明衣裳 爵弁 皮弁 祿衣	明衣裳 爵弁 皮弁 祿衣 袴	汗衫 袴 袍襖 深衣	明衣 深衣나 團領이나 直領衣, 담호(公服의 받침옷), 汗衫 袍襖 袴 單袴	單衫單袴 裏衣(長襦 俗稱 小斂衣, 窄袴), 中衣(白衫 혹은 敞衣, 上服(祭服 혹은 朝服 혹은 黑團領 혹은 幘衫 혹은 道袍	深衣나 團領이나 直領, 담호(團領의 받침옷), 汗衫 袍襖 袴 單袴	저고리,마지, 고의,겹옷,중 치막,학창의	明衣 黑團領 袴復 帖裏 汗衫 袴
簪笄	簪笄		組 笄	組	笄		巾
掩	掩	幅巾	幅巾 網巾	掩	幅巾 網巾	폭건 망건 속말단기	網巾 幅巾
瑱	瑱	充耳	充耳	瑱	充耳		充耳
幘目	幘目	幘目	幘目	幘目	幘目	면모	瞑目
握手	握手	握手	握手	握手	握手	악수	握手
決, 極	決						
冒	冒		冒		冒		
履	履	履	履	白履	履	신	履
	裹肚		裹肚		裹肚	복과	裹肚

儀禮	喪具訂	朱子家禮	喪禮備要	喪儀節要	四禮便覽	金淑堂裁縫全書	國朝五禮儀
	勒帛		勒帛		勒帛		
	鬚爪囊		小囊	綠囊	小囊		小囊
	襪	襪	襪	襪	襪	버선	襪
	纊						
						과두	
						현훈	
緇帶	帶	大帶	大帶	緇帶	帶	띠	大帶
	腰帶			腰帶	小帶	허리띠	
鞅輪	輪						
竹笏	笏						
						대님	
						영	

〈丑1-2〉 小斂衣裳 品目

儀禮	喪具訂	朱子家禮	喪禮備要	喪儀節要	四禮便覽	金淑堂裁縫全書	國朝五禮儀
緇衾	小斂衾	小斂衾	小斂衾	小斂衾	小斂衾	소렴	衾
絞	小斂絞	小斂絞	絞	小斂絞	小斂絞		絞
小斂衣 (祭服과 散衣 19稱)	小斂衣 (祭服과 散衣 19稱)	死者의 平常시 옷 19稱	散衣와 上衣19稱	倒衣, 散衣, 上服	上衣와 散衣		斂衣(散衣와 圓領 19稱)

〈丑1-3〉 大斂衣裳 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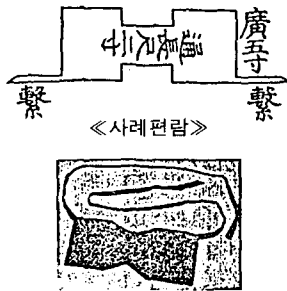
儀禮	喪具訂	朱子家禮	喪禮備要	喪儀節要	四禮便覽	金淑堂裁縫全書	國朝五禮儀
衾	大斂衾	大斂衾	大斂衾	大斂衾		대렴	衾
紵	紵		紵	紵	絞, 繩		
絞	大斂絞		散衣와 上衣30稱	絞, 繩	上衣, 散衣		絞
夷衾	夷衾						
大斂衣 (君襪와 祭服, 散衣 30稱)	大斂衣						圓領, 散衣 등 30稱

1. 우수(握手)³⁾

握手는 赤黑色 비단으로 만들고 안은 열은 붉은 색으로 만든다. 길이는 尺二寸이고 너비는 五寸이며, 길이를 三等分한 가운데 부분 四寸은 양쪽에서 一寸씩 깎아 三寸이 되게 한다. 솜을 두며 끈을 단다.⁴⁾

握手の 형태를 결정짓는 문구는 '牢中旁寸'이다. '牢中'이란 今文에 '纊中'이라 하였는데 '纊中'이란 양단이 넓고 중앙이 좁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⁵⁾ 그리고 '旁寸'은 양쪽 가장자리에서 1촌씩 잘라내는 것이다. 즉 握手の 너비는 5寸인데 가운데를 양쪽에서 1寸씩 깎으면 너비가 3寸이 된다. 그리고 길이 1尺2寸을 3

等分하면 4寸이 되므로 握手의 가운데 부분 4寸은 너비가 3寸이고 양쪽 8寸의 너비는 5寸이 된다. 《喪禮備要》, 《四禮便覽》의 握手圖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현재 출토되고 있는 握手의 형태도 대체로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그림 1). 그러나 茶山의 “牟中旁寸”에 대한 見解는注나 疏와 마찬가지로 中央을 가장자리로부터 1寸씩 깎아 중앙 부분이 잘룩한 형태의 것이라는 데는 일치하지만 그 잘라낸 부분의 형태가 삼각형이라고 하여 특징적이다.⁶⁾



다산설에 의한 연구자 재현품

(그림 1) 握手

또한 握手가 실제 연습에 있어서 몇 개 쓰이는가 하는 문제가 끊임없는 논쟁거리였는데 조선시대 沙溪(1548-1631)에 이르러 두 개를 쓰는 것으로 정착되었다.⁷⁾ 하지만 茶山은 握手를 설치하는 목적과 握手를 설치하는 방법의 설명을 통해서 握手는 한 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握手가 두 개 쓰인다는 說에 있어서는 設握의 목적이 손을 가리는 것 내지는 덮는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茶山은 設握의 목적이 양팔을 연결하여 屍身이 뒤틀리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茶山은 握手는 하나가 쓰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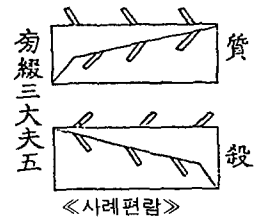
2. 모(冒)

모는 질(質)과 쇠(殺)로 이루어지는데 上身을 덮는 것은 質이라고 하고, 下身을 덮는 것은 殺이라고 한다. 質은 반듯하다는 뜻이고, 殺은 깎아서 점차로 줄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上身은 方正하므로 質이라고 하고, 下身은 점점 좁아지므로 殺이라고 한다.⁸⁾ 質의 길이는 尸身에서 늘어진 손의 끝 부분과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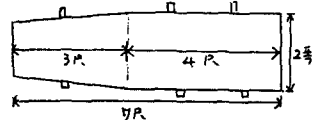
런하고 殺의 길이는 발을 가릴 뿐⁹⁾ 애초에 정해진 치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신의 키에 따라서 크기를 정하여 만든다.¹⁰⁾ 《喪大記》에 의하면 殺의 길이는 三尺이라고 하였는데¹¹⁾ 그것은 대략적인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모의 用途와 形態에 대해서 鄭玄은 “尸身을 싸는 것”이고 “직각형의 주머니”와 같으며¹²⁾ “먼저 殺로 싸 발을 싸서 올리고, 그 다음에 質로 싸 머리를 싸서 아래로 내려서 손에 이르도록 한다.”¹³⁾ 고 하였다. 賈公彥도 鄭玄과 모에 대해서 견해가 같고, 劉熙의 《釋名》에도 모는 주머니로써 尸身의 형태를 싸서 감추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⁴⁾

그러나 孔穎達은 그들의 견해대로 한다면 屍身에 모를 아래와 위로부터 물건을 담는 것처럼 하게 되므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 [泚類]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제도를 제시하였다. 《喪禮備要》과 《四禮便覽》에 제시된 모의 제도가 공영달의 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사례편람》



다산설에 의한 연구자 재현품

(그림 2) 모

茶山은 이러한 鄭玄 賈公彥 孔穎達 등의 견해는 經文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고 배척하였는데 이들과 茶山의 근본적인 차이는 모의 제도가 양단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茶山의 모에 說을 보면 다음과 같다.

“質은 반듯한 것이므로 머리에서 손끝까지 반듯하게 재단한다. 殺은 깎아서 줄이는 것이므로 손끝에서부터 발까지 점점 줄여서 재단을 한다. 대략 緇 14尺을 갖고 가운데를 접어서 七尺은 깔고 七尺

은 덮는다. 이 七尺 가운데 四尺은 緇質로 삼고 三尺은 經殺로 삼아서 左右 兩旁에 각각 緇(綴)을 하는데 끈 세 개를 사용하여 깔린 것과 서로 묶는다.”¹⁵⁾

그러나 茶山은 “喪儀 절차의 번거로움과 간편함에 있어서 古今의 변화가 많은 것이니 《家禮》에 의거하여 冒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¹⁶⁾고 하여 실제 喪禮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3. 대(帶)

茶山에 의하면 襲에 사용하는 帶에는 大帶와 雜帶가 있는데 大帶는 白縗을 써서 바탕을 만들고 가장자리에는 黑縗으로 가선을 둘러 장식한 것이고, 雜帶는 채색된 실을 섞은 것으로서 이른바 率帶 朱綠帶이다.¹⁷⁾

帶의 소재와 형태는 신분에 따라 다르다. 즉 天子의 帶는 白縗으로 만드는데 안감은 朱色으로 하고 전체에 가선을 둘러 장식하고 諸侯의 帶는 白縗으로 만들며 전체에 가선을 둘러 장식한다. 大夫의 帶는 白縗으로 만들고 늘어뜨린 부분 [垂]에 가선을 두르며 [辟垂] 士의 帶는 鍊熟한 白縗으로 만드는데 접어서 꿰매고 그 꿰맨 부분 [率下辟]에만 선을 두른다.¹⁸⁾

이처럼 帶의 가장자리는 黑縗이나 기타 다른 색으로 가선을 둘러 장식하는데 가선을 두르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있다. 표를 보면 정현은 경문의 ‘辟垂’를 ‘紐와 末’이라고 하였고, 朱子和 沙溪는 鄭玄의 해석인 ‘紐와 末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兩耳와 紳’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茶山은 鄭玄의 설을 따르지 않고 경문을 직접 해석하였다. 즉 경문에서 말하는 ‘辟垂’는 단순히 ‘垂’에 가선을 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垂’는 ‘紳’을 말하는 것이므로 鄭玄이 경문의 ‘辟垂’

를 ‘紐와 末’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¹⁹⁾ 또 ‘率下辟’란 士의 帶를 제작함에 있어 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넓이 4寸을 반으로 접어서 접으로 만드는데 그 꿰매진 부분에 가선을 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특징적이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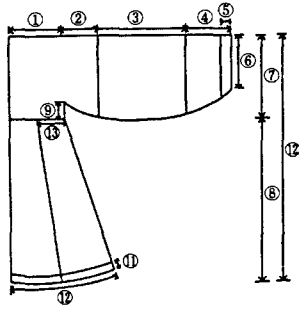
4. 심의(深衣)

深衣에 대한 내용은 《禮記》의 <深衣>篇과 <玉藻>篇에 있다. 유학자들의 深衣제도에 관한 논의는 이 두 편의 경문을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茶山의 해석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옷을 제작함에 있어 입을 사람의 허리둘레(실제로는 가슴둘레를 의미한다)를 실측하여 8로 나누어 裳의 윗부분의 너비를 정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前三後四의 제도를 裳에 적용시킨 것이다. 茶山은 이와 같이 함으로써 深衣에 대해서 가장 구구한 설이 제기된 續衽)과 鉤邊(鉤邊)을 해결하고 있다. 즉 茶山에 의하면 續衽이란 별도의 布를 써서 양 옷깃에 이어 만드는 것이고²¹⁾, 鉤邊이란 옷의 곁에 주름을 잡은 것이다.²²⁾ 또 裳은 12쪽이지만 8로 나누어 너비를 정하는 것은 앞자락의 3쪽은 포개지고 앞과 뒤를 연결하는 가장자리의 裳 두쪽은 주름을 잡아서 그 넓이를 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모두 4쪽의 너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뒤에 4쪽이 있고 앞에 세쪽이 겹쳐진 상태로 있으므로 전통적인 裳의 제도인 前三後四의 제도가 되는데 이때 앞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裳을 주름잡는다. 茶山은 이것을 鉤邊이라고 하였다. 또한 앞의 裳 세쪽이 겹쳐지기 위해서는 옷깃에 布를 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續衽이라고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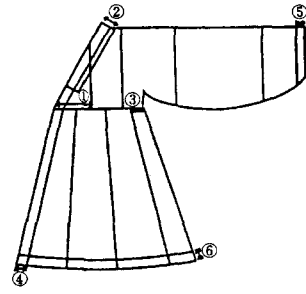
茶山의 설을 근거로 제작한 심의는 편안하고 보기에 좋아 茶山의 禮學思想의 합리성과 실용성을 엿볼 수 있다.(그림 3)

<표 2> 대의 가선 두르는 부분에 대한 명칭

	<玉藻>	鄭玄	朱子, 沙溪	茶山
大夫	辟垂	紐及末	兩耳와 紳	紳
士	率下辟	垂	紳	접어서 꿰맨 술기



· 뒤(그림 심의제도법 뒤)



· 앞(그림 심의제도법 앞)

· 뒤(그림 심의제도법 뒤)

- ① : 허리둘레/4
허리둘레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짤 때는 가슴둘레를 잰다.
저고리나 두투마기 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하고 충분한 여유분을 준다.
(실측한 가슴둘레 + 여유분)/4
- ②+③+④ : 소매길이
衣身에서 裳을 연결하고 남은 부분 + 布 한폭(원래의 소매)
+ 布 반폭(屬幅, 繼掩尺)
- ⑤, ⑩ : 가선의 넓이, 1.5촌
- ⑥ : 袖口, 허리둘레(裳과 연결된 부분) ÷ 3 ÷ 2
- ⑦ : 衣身의 길이, 소매의 넓이, 옷의 길이의 1/3
- ⑧ : 裳의 길이, 옷의 길이의 2/3
- ⑨ : 裾의 높이, 팔을 움직이기 편리할 정도로 판다.
- ⑩ : 裳의 아랫자락
- ⑪ : 옷의 길이, 뒤 목중심에서 발뒤꿈치까지 실측한다.
- ⑬ : 裳1폭의 위 넓이, 허리둘레/8

· 앞(그림 심의제도법 앞)

- ① : 續衿, 裳의 위부분 넓이의 1.5배
- ② : 깃, 2寸
- ③ : 鈎邊, 양 가장자리의 裳 1폭에 주름을 잡는다.
- ④, ⑤, ⑥ : 가선의 넓이, 1.5寸

(그림 3) 다산설에 의한 심의제도

5. 소렴효(小斂絞)

효(絞)는 衣服 등을 수렴하여 단단하고 팽팽하게 묶기 위한 것이다.²³⁾ <士喪禮>에 의하면 그 수는 가로 셋, 세로 하나이고,²⁴⁾ 너비는 가로와 세로 모두 布 한폭의 너비를 그대로 쓰며,²⁵⁾ 길이는 屍身の 크기에 따라 정해서 쓴다.

<喪大記>에 小斂絞의 넓이는 終幅이라고 하였으나 길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것은 사람의 키에 따라 그 소요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喪儀節要>와 <喪禮備要> <四禮便覽>에는 그 길이를 가로는 4尺이고, 세로는 10尺이라고 하였지만 몸의 둘레와 키에 따라 필요한 만큼 취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²⁶⁾

다음으로 茶山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거리는 絞의 끝의 모양이다. 經文에 따르면 '그 양끝을 가른다[析其末]'고 하였다.²⁷⁾ 그것은 묶는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²⁸⁾ 효의 넓이가 종폭(終幅)이므로 넓어서 묶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양단을 가름으로써 묶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析其末'이다. 그런데 이 小斂絞의 끝을 둘로 가르는가 아니면 셋으로 가르는가에 이견이 있다. 이 문제는 鄭玄이 <喪大記>를 인용하여 "絞 한폭을 셋으로 나눈다"²⁹⁾고 한 것에서 비롯된다. 鄭玄의 해석을 계승한 사람이 孔穎達이고 朱子, 陳澧를 비롯하여 沙溪(金長生1548-1631) 陶庵(李穡1680-1746) 등 우리나라의 성리학자 대부분도 정현의 설을 따른다. 그러나 茶山은 '析'의 의미는 둘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고 <喪大記>에서 셋이라고 한 것은 大斂絞에 관한 기록이지 小斂絞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鄭玄과 孔穎達을 비판하였다.³⁰⁾ 중국에서는 敖繼公과 聶氏는 둘로 가르다고 하여 茶山과 같은 입장이다.

그 갈라진 길이에 대해서는 茶山은 가로효 세로

효 모두 1尺 6寸이라고 하였고,³¹⁾ 沙溪와 陶庵은 가로효의 경우 가운데 8寸은 가르지 않고 남겨두며 세로효의 경우 가르지 않은 부분이 三分의 二³²⁾라고 하여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수치이다.³³⁾ 그러나 이것도 정해진 수치는 아니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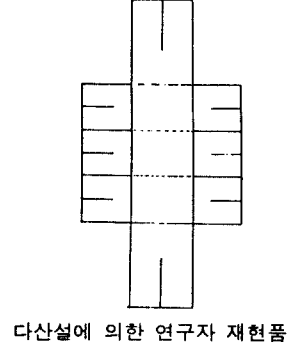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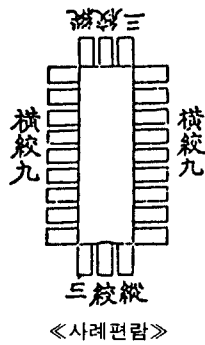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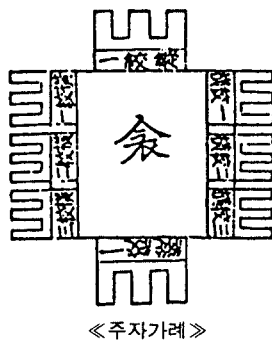
6. 대렴효(大斂絞)

〈喪大記〉에 大斂의 포효(布絞)는 세로로 셋이고 가로로 다섯이라고 하였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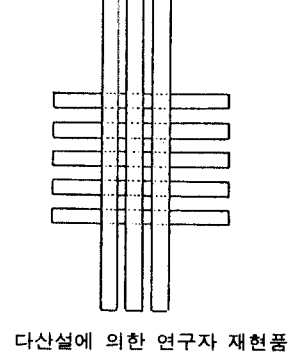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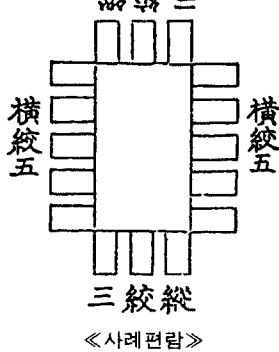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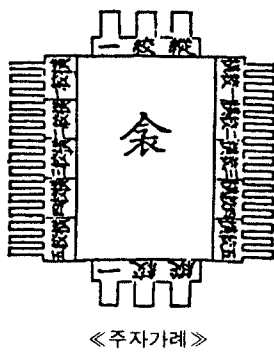
여기에서 셋과 다섯이라는 수는 布 한쪽을 셋으로 가른 조각을 가리킨다. 즉 가로는 布 두 쪽을 취하여 각각 세 쪽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한쪽은 버리고 다섯을 쓰며, 세로는 포 한 쪽을 세 쪽으로 분리시킨다. 따라서 大斂에서 말하는 셋이라고 하는 것은 布 한 쪽에 해당되어 小斂에서 말하는 셋과는 다르다.(그림 5)

그러나〈喪禮備要〉³⁵⁾와 〈四禮便覽〉³⁶⁾ 역시 가로 효는 완전히 분리시키지만 세로 효는 길이를 삼등분하여 그 가운데 부분은 가르지 않는다고 하여 茶山說과 다르다.

〈朱子家禮〉의 大斂圖에는 가로 효는 다섯이며 그 兩端을 모두 셋으로 갈라 모두 15가닥이고, 세로 효는 하나인데 그 양단을 셋으로 갈라 모두 세 가닥이다. 그러나 附注에 인용한 高氏說에 의하면 “대렴의 효는 세로는 셋인데 한 쪽을 취하여 세 조각으로 만든 것이고 가로는 다섯인데 포 두 쪽을 취하여 여섯 조각으로 만들어 다섯을 쓰는 것이다.”³⁷⁾라고 하여 大斂圖와 본문의 내용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 沙溪³⁸⁾는 家禮圖가 잘못되었다는 태도를 취하고, 芝山(曹好益1545-1609)은 家禮圖의 글이 〈朱子家禮〉 본문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한다.³⁹⁾



(그림 4) 小斂絞



(그림 5) 大斂絞

V. 茶山說의 특징과 의의

茶山의 저술들로부터 斂襲衣에 관련된 학설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斂襲衣에 관해서 기존에 통용되던 제도와 용법과는 다른 새로운 설을 제시한 것이 적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그러한 제도와 용법의 이면에 작용하는 이론적 관점과 분석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왕의 학자들과는 구별되는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본적인 관점상의 변화라고 평가할 만큼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할 면이라고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禮學은 朱子를 포함한 理學者들의 禮說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理學者들의 禮說의 근원에 있는 鄭玄 孔穎達 賈公彥 등의 관점과 학설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것에 대한 비판적 극복을 시도하는 예는 많지 않다. 그러나 茶山의 학설은 그들과는 달리 注疏의 학문적 맥락을 비판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여 새로운 복식관의 정립을 노력한 점이 두드러지게 눈에 뜨인다. 특히 茶山은 중국의 예학자들 가운데 注疏의 전통을 비판하고 그것을 이탈해서 독자적인 관점의 예학을 정립해온 학자들의 견해를 많이 참조하거나 근거로 삼는다. 중국에서는 《儀禮集說》을 남긴 元代의 敖繼公, 《儀禮節解》를 편찬한 明代의 郝敬 등이 注疏의 전통에서 이탈하여 그것에 비판적인 예학의 맥을 형성하여 왔다. 이들의 학설을 원용하고 근거로 삼은 고증과 논증이 茶山의 斂襲衣 학설의 구성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茶山의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先秦시대의 古經으로써 《儀禮》《禮記》 등의 經文을 증명한다는 “이경증경(以經證經)”의 원리와 “의해(憲解)”의 원리이다. 그리고 茶山의 喪禮와 斂襲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태도도 斂襲衣 제도와 용법을 해명하는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茶山의 新說이 비록 訓詁와 考證을 기본적인 도구로 삼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연관된 그의 해석의 관점이 나름대로 일관되고 뚜렷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新說이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다.

VI. 結 論

朝鮮은 高麗末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무신 정권에 의해 건국되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조선초기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朱子家禮》가 수용되었다. 그것은 《朱子家禮》의 내용인 禮를 바로 질서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冠婚喪祭의 의례가 보편화되었다. 특히 喪禮와 祭禮는 조상숭배사상과 孝사상의 계승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조선시대 前後期를 통털어 家禮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性理學을 禮學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茶山의 상례관련 서적으로 대표적 예서인《喪禮四箋》가운데 〈喪儀匡〉〈喪具訂〉을 통해 다산의 新說과 거기에 내재한 학문적 관점,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대표적인 것은 握手와 深衣, 帶, 冒, 小斂絞, 大斂絞등이다. 握手는 전통적 학설과 우리나라 성리학자 모두 2개를 쓰고 손을 싸는 것이라고 하였고, 지금까지 출토된 것들도 대부분 2개이다. 그러나 茶山은 한 개를 쓰며 그 용도는 두 손을 연결하여 묶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喪禮備要》나 《四禮便覽》이 형태와 사용법상 갖고 있는 모순점을 해결한 것으로 주목된다.

深衣는 조선시대 성리학자마다 나름대로의 설을 갖고 있을 만큼 형태가 다양하다. 그것은 深衣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茶山은 사람마다 체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제도법을 제시함으로써 深衣가 옷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의미를 회복시켰다.

그외에도 冒를 깔고 덮는 도구로 이해한 것, 帶에 있어서 士는 한쪽만, 大夫는 늘어뜨린 부분만 가선을 두른다는 설명, 小斂絞에 대해서 끝을 둘로 가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설명, 大斂絞의 끝을 가로세로 전부 가른다는 견해등은 당시 성리학자의 설과 구분되는 것들로서 茶山의 예학적 입장이 비교

적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실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경문의 이해를 통하여 注疏家の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하는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茶山の服飾에 관한 학설이 연구되어 발표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직 복식에 관한 다산의 학문세계에 대한 연구의 환경이 무르익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茶山の斂襲衣를 비롯한 儀禮服飾에 관한 服飾學의 관점에 입각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1) 劉權鍾, 〈茶山禮學研究-喪儀說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64~65쪽
- 2) 《喪禮四箋》, 序 및 劉權鍾 進계논문 64~71쪽 참조
- 3) '握手'를 '우수'라고 읽은 것은 茶山の 설명에 따른 것이다. 茶山은 읽기 어려운 한자에 대해서는 읽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握'의 음을 '우'라고 하였다(握音於候切, 與猶堂全書, 아름출판사 영인본 제11책 11쪽)
- 4) 《儀禮注疏》권35, 〈士喪禮〉, 握手用玄纁裏 長尺二寸 廣五寸 牢中旁寸 著 組繫
- 5) 《儀禮注疏》권35, 〈士喪禮〉, 鬣并…疏 纁中者 兩頭闊 中央狹也
- 6) 與猶堂全書, 아름출판사 영인본 제13책10쪽(이하 全書 13-10으로 약기함), 襲含, 沿邊削一寸 其犯亦一寸 宜斜犯之 其所削之片爲三角形
- 7) 이승연, 〈朝鮮における《朱子家禮》の受容および展開過程〉, 歴史學報, 日本 歴史學會, 108-109쪽
- 8) 全書 11-503, 劉續曰 冒上身者方正 故曰質 冒下身者漸狹 故曰殺
- 9) 《儀禮》〈士喪禮〉, 冒 緇質 長與手齊 經殺掩足
- 10) 全書 11-503, 準死者身而爲之 初無寸量也
- 11) 《禮記》〈喪大記〉, 凡冒質長與手齊 殺三尺
- 12) 《儀禮注疏》권35, 〈士喪禮〉, 冒棺尸者 制如直囊
- 13) 上同, 其用之 先以殺緇足而上 後以質緇首而下 齊手
- 14) 全書 11-506, 冒以囊緇其形也
- 15) 全書 11-504~505, 總之 冒之爲制 宜如夷衾 卽此一冒之內 有質殺之分 如銘旌之有緇經 非有上下兩段 若衣裳之不連也 質者正也 自頭至手 其裁正方也 殺者刻也 自手至足 其裁刻削也 約用緇十四尺 中屈之 七尺藉尸幹 七尺覆尸上 而此七尺之中 四尺爲緇質 三尺爲經殺 左右兩旁 各綴三系 用與藉幹者相結 則庶乎其近古矣
- 16) 全書 11-507, 喪禮繁簡 古今多變 仍依家禮 宜不設冒
- 17) 全書 11-507, 大帶者 用素練爲質(中略) 雜帶者 雜之以組纁 若所云率帶朱練帶者 是也
- 18) 《禮記》〈玉藻〉, 天子素帶朱裏終辟 而(諸侯)素帶終辟 大夫素帶辟垂 士練帶率下辟
- 19) 全書 11-508, 鑄案 垂者紳也 紐可云垂乎
- 20) 全書 11-509, 率也者 摺合也 四寸之帛 屈之爲二寸之博 則其兩合者爲率也 率下辟者 只飾 其兩合之邊也
- 21) 全書 11-522, 故別用布 裁之爲衽 續之爲兩襟 此所云續衽也
- 22) 全書 11-523, 鉤邊者 謂邊側二幅裝積也
- 23) 全書 11-545, 鄭曰絞所以收束衣服 爲緊急者也
- 24) 《儀禮》〈士喪禮〉, 絞橫三 縮
- 25) 上同, 廣終幅
- 26) 《喪禮備要》, 橫者 其長各四尺或三尺餘 縱者一幅 其長十尺或九尺許 各隨其尺之長短 肥瘠裁定 여기에서 단위는 布帛尺이다.
- 27) 《儀禮》〈士喪禮〉, 絞橫三 縮 廣終幅 析其末
- 28) 《儀禮》〈士喪禮注〉, 一幅析其末者 令可結也
- 29) 全書 11-545, 鄭曰 喪大記曰 絞一幅爲三
- 30) 全書 11-546, 析也者 分而爲二之名 … 鄭仍引之 爲小斂之絞 而孔氏從而順之 則絞法亂矣
- 31) 全書 13-14~15, 其豎者 兩端析入 各一尺六寸 所以結也 其橫者 兩端析入 亦各一尺六寸 所以結也
- 32) 《喪禮備要》, 橫幅則留中八寸餘 縱幅則留三分之二不析
- 33) 다산과 사계 모두 가로효의 길이는 4척이고 작으면 3척이라고 하였다. 그중 다산은 1척6촌씩 가르다고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갈라진 길이는 3척2촌이고 가운데 가르지 않은 부분은 8촌이 되어 沙溪가 가운데 8촌은 남겨 놓는다고 한 것과 같고, 세로효의 경우 전체 길이가 10尺이고 작으면 9尺이다. 그중 다산은 1척6촌씩 가르다고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갈라진 길이는 3척 4촌으로 사계가 가운데 3분의 2는 가르지 않고 남겨놓는다고 한 것과 비슷하다.
- 34) 《禮記》〈喪大記〉, 大斂布絞 縮者三 橫者五
- 35) 喪禮備要, 大斂, 大斂之具, 絞, 縱者一幅 … 三分其長 留中一分劈開其兩端各爲三片
- 36) 四禮便覽, 大斂, 陳大斂, 絞, 縱者一幅析其末兩端各爲三片如小斂
- 37) 《朱子家禮》大斂, 高氏曰 大斂之絞 縮者三 蓋取一幅布 裂爲三片也 橫者五 蓋取布二幅 裂爲六片 而用五也
- 38) 《喪禮備要》大斂, 絞, 家禮圖 斂橫絞 分作十五片 誤也
- 39) 《家禮考證》, 惟卷首有大斂圖 其布絞之數 亦與附註所引高氏說不同 蓋非家禮本文也